

■ 주요 기사

○ 유해 생활화학제품 퇴출 관련(3건)

조선	쓰리엠 세정제서 발암물질 과다 검출
매경	못믿을 세정제·방향제... 발암물질 범벅
경향	'안전기준 위반'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8개 퇴출

○ 기본소득제 관련(2건)

조선	소득·재산 안따지고 매달 최대 30만원 주겠다고?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핀란드선 시범사업중
----	--

○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관련(2건)

중앙	15~39세 "적성·급여보다 안정적 직장"
경향	청년들, 적성보다 안정적 일자리 원한다

■ 주요 칼럼 · 기고

○ 노조 파업 관련(1건)

동아	[사설]상품권 미끼로 파업 참여하라는 현대중 노조
----	---

○ 임금체불 관련(1건)

한경	[뉴스의 맥] 늘어나는 임금체불, 형사처벌 위주보다 관행 개선 선행돼야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조선	고용 복지	제목	소득·재산 안따지고 매달 최대 30만원 주겠다고? A8면
		내용	대선이 다가오면서 일부 야권 대권주자가 기본소득제 도입 공약을 내걸고 있음. 소득·재산·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
	환경	제목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핀란드선 시범사업중 A8면
		내용	핀란드는 1월부터 국가 단위로 처음 실험에 들어감. 올 1월부터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7000원)를 지원.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
	환경	제목	쓰리엠 세정제서 발암물질 과다 검출 A12면
		내용	환경부는 17일 "한국쓰리엠의 세정제와 접착제, 칼자이스의 카메라 렌즈 세척액, 유선케미칼의 손오공본드 등 28개 생활 화학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이 제품들에 대한 시장 퇴출 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중앙	고용 복지	제목	[인구 5000만 지키자] 아빠도 2년 육아휴직…“회사가 도와 주니 애 더 낳고 싶네요” A14면
		내용	'일·가정 균형 우수기업'은 기업 하기에 따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오후 6시 칼퇴근, 연속 2회 남성육아휴직 등
	고용 복지	제목	[인구 5000만 지키자] “임신·육아 편하게 했더니 자녀 셋 직원이 400명” A14면
		내용	일·가정 균형 우수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직원과 가족이 행복해지면 회사가 발전한다”고 입을 모음. 기업이 생존하려면 가정의 행복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
	고용 복지	제목	15~39세 “적성·급여보다 안정적 직장” A19면
		내용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인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회사'인 것으로 조사. 자신의 적성이나 높은 급여는 이보다 후 순위
동아	노동	제목	돈으로 사는 투쟁?... ‘파업 상품권’ 또 꺼낸 현대중 노조 A12면
		내용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40차례 넘게 파업을 이어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만 따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
	고용 복지	제목	[사설]상품권 미끼로 파업 참여하라는 현대중 노조 A31면
		내용	현대중 노조는 2015년에도 파업 참가자 4000여 명에게 전통 시장 상품권을 지급해 약 2억 원어치의 조합비를 쓴 전력이 있다. 노조 측은 “식사비 조”라고 합리화하지만 ‘돈으로 파업을 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고용 복지	제목	국조실 “고용률 66%로 높아졌다”... 국민체감과 거리 먼 평가 A10면	
	내용	국조실이 일자리 창출 미흡, 저성장 장기화 등 최순실 게이트에 가려져 국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되레 ‘면죄부’에 가까운 좋은 평가를 내렸다	

매체명	주 제		
매경	환경	제목	못믿을 세정제·방향제...발암물질 범벅 A5면
		내용	한국쓰리엠 접착제, 맑은나라 세정제, 폴앤마틴 방향제(싱글룸 디퓨저)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28개 생활화학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독성물질이 검출돼 해당 업체들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이 내려짐
한경	노동	제목	[뉴스의 맥] 늘어나는 임금체불, 형사처벌 위주보다 관행 개선 선행돼야 33면
		내용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장의 관행을 바꾸고 이에 대한 노사와 국민 의식도 개선돼야
경향	노동	제목	3개월짜리 근로계약 거부했더니...아파트 경비원 노조 간부에 '문자 해고' 통보 A10면
		내용	한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노조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해 논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경비분회는 “노조 간부들만 콕 짚어서 계약 만료일 당일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노동탄압”이라고 밝힘
	고용 복지	제목	청년들, 적성보다 안정적 일자리 원한다 A12면
		내용	1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안정적 회사’(31.0%)를 적성에 맞는 회사(25.6%)보다 더 선호
환경	환경	제목	‘안전기준 위반’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8개 퇴출 A11면
		내용	한국쓰리엠 욕실용 세정제와 강력접착제, 칼자이스 렌즈클리너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28개 생활화학제품이 퇴출
한겨레	노동	제목	산은·기은 노조 “공기업 전환은 관치금융 강화하는 퇴보” 반발 18면
		내용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는 “공기업 지정은 한국전력과 같은 독과점 기업에 적용하는 잣대이며 시장에서 은행업을 하는 산업은행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비판

<끝>